

“SK하이닉스 HBM 개발속도, 엔비디아 보다 더 빠르다”

최태원 SK회장-젠슨 황, 면담

“코스모스 등 퍼지컬 AI 의견 교환
한국 제조 노하우에 대해 전했다”

“올해 CES의 모든것에 AI 들어가
AI 데이터센터, 중점 과제로 추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세계 최대 IT-기술 박람회 CES 2025에서 만났다. 최 회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이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최 회장은 3년 연속 CES에 직접 참석했다.

최 회장은 젠슨 황과의 만남에서 HBM에 관한 추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이 SK 전시 부스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SK

디아를 조금 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과거, 개발을 빨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량에 대해서는 실무진 내에서 모두 결정 완료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코스모스(Cosmos) 등 퍼지컬 AI에 관한 의견을 교환 했고, 앞으로 갈

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제조 노하우에 대해서도 전했다”고 말했다.

코스모스는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물리 AI 개발 플랫폼이다. 최첨단 생성형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과 고급 토크나이저, 가드레일, 가속화 비디오 처리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이날 AI 데이터센터 등 SK그룹의 AI 사업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최 회장은 “올해 CES에서는 모든 것에 AI가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 데이터센터 관련 비즈니스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미국 진출 구상에 대해서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은 발전소사업뿐 아니라, 반도체·쿨링(열관리) 단계 등 모든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에는 SK가 가진 포트폴리오와 많은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K그룹은 이번 CES에서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주제로 부스를 꾸리고 AI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HBM3E 16단을 포함한 AI 반도체, SKC 유리기관 기술 등을 선보였다. 최 회장은 부스에 방문해 SKC 유리 기관 모형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현대차그룹, 올해 국내...’서 계속

기아 화성 EVO 플랜트 올해 하반기 완공하고 맞춤 PBV 전기차 생산

현대차그룹은 올해도 EV 전용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지난해에는 기아 광명 EVO 플랜트를 가동하고 소형 전기차 EV3 생산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기아 화성 EVO 플랜트를 완공하고 고객 맞춤형 PBV 전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에서는 전기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을 양산할 계획이다.

전략투자는 자율주행, SW, AI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된다.

국내 투자를 사업군별로 분류하면, 완성차 분야 투자액이 16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완성차 분야 외에 부품, 철강, 건설, 금융 및 기타 사업 분야에서도 신사업 발굴, 핵심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조원의 투자를 단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 그룹 미래전략 점검... “강도높은 쇄신 필요”

‘2025 상반기 롯데 VCM’ 개최 신동빈 회장 비롯 약 80명 참석 각 계열사 CEO에 메시지 전달

롯데가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상반기 롯데 VCM’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 VCM은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해 각 계열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롯데그룹의 경영전략 회의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과 실장, 사업군 총괄대표, 계열사 대표 등 약 80명이 참석한다. 지난 2023년부터 VCM에 참석한 온 신유열 부사장도 올해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다. 롯데는 그간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온 만큼, 이번 상반기 VCM에서 그룹의 향후 방향과 전략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무·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동시에 신동빈 회장이 각 계열사 CEO들에게 그룹 경영 방침과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는 게 롯데지주 측 설명이다.

앞서 롯데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라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렌탈을 매각하고, 롯데헬스케어 사업을 철수하는 등 비핵심 사업 정리를 가속화한 바 있다.

신 회장 역시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 한 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는 VCM에 앞서 그룹 내 인공지능(AI)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AI 과제 쇼케이스’도 진행한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롯데이노베이트, 대흥기획 등 9개 계열사가 참여해 AI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롯데이노베이트는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활용한 회의록과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시연하며, 대흥기획은 광고 마케팅 플랫폼 ‘에임스’의 실무 활용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AI 기술을 안전 관리에 적용한 사례와 구체적인 기능을 발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1면 ‘美 인플레이 재확산...’서 계속

韓 금리인하, 美 동결 원화 약세·강달러 심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4.7%를 넘기면서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인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첫 FOMC인 오는 28~29일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면서 시장에서도 95.2%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준은 “통화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참석 위원들은 통화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문제는 한은 금통위의 결정이다.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화약세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3.0%)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4.5%) 기준 1.5%포인트(p)다.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경우 금리차이는 1.75%p로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강달러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 전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금리 행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달러와 트럼프 리스크도 있는 만큼 1월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성수품 물량 1.5배 확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당정, 가격안정·소비진작 협의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혜택
대형마트 등 할인지원 600억 투입

당정이 9일 설연휴를 대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 상향하는 등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전 3주간 배추·무,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년대비 1.5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지원(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하여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도 신속

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설 성수기인 1월 10일에서 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평년대비 1.5배인 16만8000톤(t)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설 대책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할인 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자들이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싼값에 농축수산물 구매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농협을 통해 다양하고 실속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12.5% 늘려 공급한다. 사과·만감류·포도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는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을 비롯해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에 대한 할인 지원에 나선다.

당정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도 최대 4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또한 당정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대상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교통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세종=김연세·박태홍 기자 kys@